

종합·해설

■ 오늘 민주통합당 지도부 예비경선 관전포인트

옛 민주당 출신 11명중 탈락자는?

‘3강 3중’ 경선구도 속 남은 3장 티켓 관심
특정 후보 탈락 배제 투표·합종연횡 변수도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경선(컷오프)이 26일 실시된다. 이번 예비경선에서는 15명의 예비후보자 중 다음달 15일 전당대회에 출전할 9명의 후보를 뽑는다.

이번 예비경선은 ‘3강 3중’ 구도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구 민주계 인사들간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경선구도... ‘3강 3중’=이번 예비경선 출마예정자는 옛 민주당 출신 11명, 시민통합당 4명 등 15명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120~150표 정도는 얻어야 티켓질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인단 구성과 투표방식을 고려할 때 한명숙·박지원·문성근(3강)·이학영·김부겸·박영선(이상 3중) 후보 등의 분산 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9명의 예비후보자들이 남은 3장의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컷오프에선 옛 민주당 출신 중앙위원 462명과 시민통합당 출신 중앙위원 300명 등 총 762명을 대상으로 1인3표제로 투표를 실시, 15명 중 9명을 추린다.

구 민주계 11명, 462표 놓고 경쟁=15명 중 6명이 탈락하는 예비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11명의 옛 민주당 출신 인사들 중 몇 명이나 컷오프를 통과할 지 여부다.

현재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들은 예비후보자 4명 중 2~3명 정도가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성근·이학영 후보가 유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나머지 6~7자를 놓고

민주당 출신 11명이 경쟁해야 하는 함겨울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명이 통과할 경우엔 6장의 티켓을 놓고 11명이 경쟁하게 된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권 후보자가 적은 시민통합당 출신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기존의 민주당 출신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배제 투표·합종연횡 등 변수=순학규·정동영·정세균 삼인공분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후보 간 합종연횡도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순 고문은 김부겸·이인영·한명숙 후보를, 정동영 고문은 이종걸·한명숙 후보를, 정세균 고문은 한명숙·신기남·문성근 후보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요 후보 측에서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배제투표 전략을 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배제 투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상당한 득표력을 발휘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새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도부가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당 위정직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이종걸 등이 세도해 관심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민주, 청년 비례대표 ‘당선권’ 4명 배치

20~30대 제한·지역에선 배제 등 선정 방법 논란

비례대표 당선권 4석이 배정되는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 비례대표 선정 방식에 대한 논란 등이 증폭되면서 20~30대 세대의 소수를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통합당은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만 25세~35세에서 남녀 대표 한 명씩 총 4명을 선정,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고, 이후 최다득표자는 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민희 최고위원을 임명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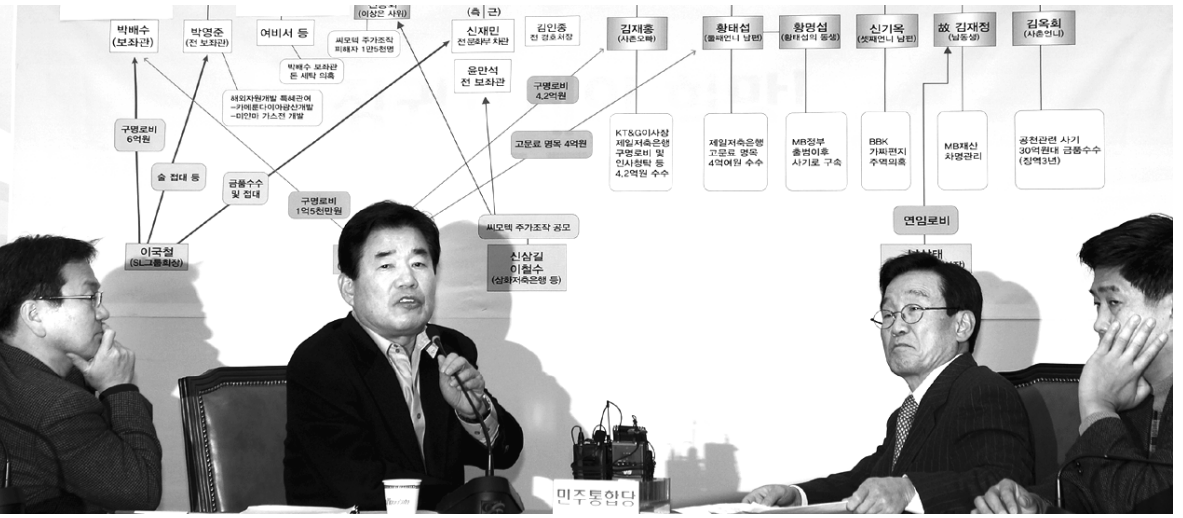
하지만 구체적인 청년 비례대표 선정 방법과 관련,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에서 구상하고 있는 3단계 경쟁 방안이 20~30대 세대의 참여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1차 서류 및 면접심사와 2차 후보자 간의 상호 투표 등 청년 비례대표 선출 초기부터 20~30 세대의 대표가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 예선이 폐지되면서 전국적인 ‘홍행’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청년 비례대표 선정을 둘러싸고 각 계파별로 밀고 있는 후보가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사회 진영 등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들이 청년 비례대표 선정을 주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통합당 임시지도부는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회’에 구 민주당 출신인 김유정 의원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외에서는 청년 비례대표 선정의 취지와 흥행을 위해서는 지역 및 권역예선을 청년 선거인단 투표로 바꾸거나 배심원단 투표를 병행해서 예비 후보를 압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권역별로 청년 비례대표 흥행을 일으켜 최종 결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대통령 측근 비리진상조사위원회의 6대 비리게이트 대응방침(2개 국정조사, 4개 특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속개...지역 선거구 축각 곤두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26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속개,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구국당(구태·담양·곡성) 등의 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26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속개하며, 특히 활동기간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총정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각 선거구의 인구 상향선과 하향선을 동시에 확대, 선거구 증설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의석수 299석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대통령 주변 6대 비리 국조·특검 추진

민주통합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2개의 국정조사와 4개의 특검조사도 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측근 온갖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신 건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주변 6대 비리 의혹에 대한 대응방침을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과,

SLS이국철 회장의 토비 의혹,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등 금품수수 의혹,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각동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C&K의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고비 의혹은 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apartments and land.

매각물건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Continues the list of real estate auction items.

매각물건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Continues the list of real estate auction items.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이영복